



이화 의학교육 소식지

Ewha Medical Education Newsletter

이화의대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 이화의대 교육목표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지도자 양성

2023학년도 2학기 'ESAC 강좌' 개최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 초청

“생태적 전환과 호모 심비우스” Ecological turn and Homo symbiosis



▲ 23일 의학관(마곡)에서 ESAC 강좌가 개최되었다.

우리의대(학장 하은희)는 2023학년도 2학기 Ewha Social Active Communication (ESAC)을 10월 23일(월)에 의학관(마곡) 계림홀에서 개최했다. 우리의대는 매년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대외 의사소통 능력 제고를 위해 의료계 및 사회 각 분야 인사를 초청하여 ESAC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ESAC 강좌는 이화여대 석좌교수이자 생명다양성재단 대표이신 최재천 교수님을 초청하여 ‘생태적 전환과 호모 심비우스—Ecological turn and Homo symbiosis’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좌의 연



▲ 최재천 교수의 강연 모습



▲ 강좌 진행 모습

사인 최재천 교수는 하버드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은 생물학자로, 서울대학교 교수, 국립생태원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로 계시며, ‘최재천의 아마존’을 통해 대중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기후 및 생물다양성의 위기, 생태 백신(Eco-vaccine),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최재천 교수는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COVID-19와 같은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다른 생명과 지구를 공유하겠다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날 특강에는 150여명의 의과대학 재학생을 비롯하여 많은 대학원생, 그리고 하은희 의과대학장, 편옥범 이화의학교육센터장과 많은 교수들이 참석하여 학생들과 함께 하였다.

‘2023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워크숍’ 개최

이화의대 발전방향, 학사·인사제도 안내 및 교육 참여를 위한 의학교육, 임상교육, 시험문제 출제 등 안내



우리의대(학장 하은희)는 신입교원을 위한 워크숍을 지난 11일 이화의학교육센터 주관으로 개최했다. 11일에 열린 이번 워크숍은 의과대학 교육 및 교무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를 높이고 의과대학 교수로서 책무성을 제고하고 교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2023학년도 2학기 신규임용 전임교원인 최지수 교수(생화학교실), 강인숙 교수(내과학교실), 김선영 교수(정신건강의학교실), 이윤택 교수(외과학교실), 전상우 교수(정형외과학교실), 조동영 교수(신경외과학교실), 박진우 교수(성형외과학교실), 김건 교수(응급의학교실)가 참석하였다. 워크숍에서는 ▲For Global Ewha



▲ 신입교원 워크숍 진행 모습

Medicine(하은희 의과대학장), ▲교수 연구 지원 체계(안영호 의과학연구소장), ▲학생 연구 역량 강화(양현중 연구부부장), ▲학사 안내(우소연 교무부부장), ▲교원종합평가(정최경희 교무차장), ▲의과대학 교육과정 소개(편옥범 이화의학교육센터 센터장), ▲슬기로운 임상실습(이경은 임상교무부장), ▲올바른 시험 문제 출제하기(이혜진 국시위원장)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이날 참석한 신입교원들은 “워크숍에서 신입교원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어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하은희 의과대학장은 “우리의대는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변화의 시점에 서있다”며, “For Global Ewha Medicine을 위한 노력에 교수님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2023학년도 2학기 문항출제 워크숍’ 개최

교수자 간 상호 피드백을 통한 문항 출제 실습 진행



▲ 지난 11월 2일 의학관(마곡)에서 「2023학년도 2학기 문항출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우리대학은 지난 11월 2일 의학관(마곡)에서 「2023학년도 2학기 문항출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이화의학교육센터가 교수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의사국가고시의 최신경향을 토의하고 문항개발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하였으며 17시부터 21시까지 4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의과대학 시험문제 출제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한 이번 워크숍에 내과,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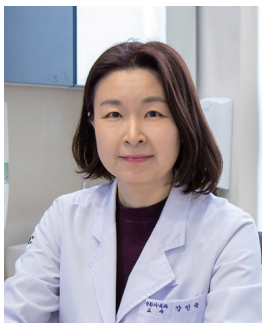


▲ 워크숍 진행 모습

경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등에서 14명의 교수가 참석하였다. 워크숍 진행은 ▲의사 국가고시 현황(이혜진 국시위원장), ▲의사 국가고시 문항출제(권형주 CPX위원장), ▲조별 문항 검토(PBL팀), ▲전체 발표 및 피드백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워크숍 전 참석자들이 문항을 미리 출제하고 조별 튜터와 함께 조별 토론을 충분히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조별 토론을 통해 수정한 문항들에 대하여 이혜진 국시위원장, 권형주 CPX위원장, 우소연 교무부학장, 이경은 임상교무부장, 편육범 이화의학교육센터장이 피드백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발표와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참석한 교수들은 “문제 출제의 양식을 학습하는 것이 만족스러웠다”, “참석자들의 문제 출제 후 피드백이 좋았다”는 소감을 남겼다. 편육범 이화의학교육센터장은 “그동안 문항출제워크숍을 통해 점진적으로 우리의대 시험 문제가 좋아지고 있다”며,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문항출제워크숍 교원 참여 후기

순환기내과 교수 강인숙



문제내는 법을 배우라고요?
내과 의사로서 환자 진료를 위해 계속 최신 지견을 쌓아가는 것은 기본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또한 대학교수로서 내가 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노력하며 더불어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여러 노력을 해보게 된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노력과 배움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익숙하다. 그러나 시험문제 내는 것은 강의에 대한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고 별다른 감흥 없이 하던 대로 출제를 하게 된다. 더구나 실습 학생에 대한 시험은 거의 한달에 한번 꼴로 반복해서 출제해야 하니 그저 번거로움에 소홀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본다. 그런데 이번 문항출제워크숍을 통해 시험문제가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배울 수 있었다. 좋은 문제, 좋은 문항에 대해 듣고 실습을 하고 보니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좋은 문제, 좋은 문항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내가 출제한 문항들을 생각해 보니 참으로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번 교육이 통해 향후 출제할 문항들은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자들의 부족한 문항들을 일일이 점검해 주시고 보완점을 알려주신 모든 교수님들과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준비하고 함께 해 주신 의학교육센터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의과대학 연구부, 혁신적 연구과제 및 특허 멘토링 서비스 시작

의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안소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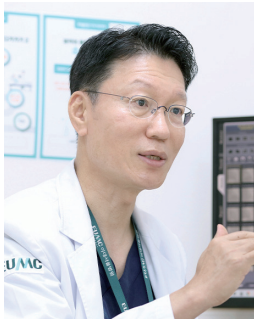
▲연구 멘토링중인 양현중 연구부학장과 신입교원 김이준교수

최근 의과대 연구부에서는 연구자 맞춤형 지원을 시작했다. 신입교원과 1대1 미팅을 통해 맞춤형 연구 솔루션을 제안하고, 정부연구과제 신청, 특허 신청 및 창업에 관심이 있는 교수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창의적인 연구 아이디어에 적합한 과제를 찾아 선정율을 높이거나 사업화에 유리한 특허 항목 도출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신청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교원과 1대1 멘토링 세션을 통해, 신청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기술을 습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부학장 양현중교수는 이 프로그램이 “학생과 교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의료 분야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하였다. 이 멘토링 서비스는 2023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관심 있는 학생 및 교원은 의과학연구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상과 소개

순환기내과

순환기내과 교수 편육범



“56세 남자가 아침 운동 중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를 통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실려왔습니다.” 이른 새벽의 고요함을 깨고 유난히 크게 들리는 의료진의 다급한 전화에 응급진료센터를 향한다. 아직 11월의 가을이건만 갓 침대에서 나와 행한 연구실 복도를 빠르게 빠져나오는 순환기내과 당직의는 출다. 심근경색증 진단 하에 순환기내과 중재시술팀이 모여 응급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삽

입 시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항혈소판 치료 등을 하면서 합병증이 없으면 1주일 입원 후 퇴원하는데 실습학생은 이 환자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2차 예방을 위한 조치를 토의하면서 결정하게 된다. 그 외 심부전증 환자에서의 진료 지침, 동기능 부전 증후군과 방실차단에서의 의한 실신 환자에서의 치료 전략, 회복된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 환자에서의 2차 예방, 가슴두근거림 환자의 진단 접근 등을 실습하게 된다. 외래 실습을 통해 혈압이 높아서 내원한 신환에서 다양한 혈압 측정 방법을 활용하고 위험도 평가, 약제 선택 등의 치료 지침을 이해하며 가슴통증으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각종 검사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진단 계획을 수립한다. 그 외 가슴두근거림이나 어지럼증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가능한 원인을 이해하고 진단 전략을 숙지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여러 과(주로 수술을 시행하는 외과)에서의 협진, 특히 수술 전 협진을 통해 각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심혈관계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여 항혈전제와 항혈소판제제를 투여하는 환자에서의 약제 중지 여부 등 적절한 답변을 하도록 한다. 심장혈관 검사실에서는 심전도, 24시간 활동혈압, 24시간 심전도 검사, 운동부하심전도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그 외 심도자실에서 관상동맥 조영술과 전기생리학 검사를 이해하고 다양한 검사를 통해 어떤 소견을 파악해야 할지 결정하도록 한다. 관상동맥 중재술과 말초혈관, 구조적 심장질환에서의 중재시술 그리고 삽입형제세동기, 고주파 절제술, 인공심장박동기 삽입 술기를 관찰하고 그 환자에게 외래에서 어떻게 추적 관찰할 지를 경험하게 된다. 실습기간 동안 학생이 가능한 모든 순환기내과 교수님을 1시간 정도씩 만나서 간단한 티칭과 함께 평소 궁금한 점을 토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습 후 피드백을 통해 더욱 개선,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심장혈관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2번째 사망원인이며 증가하고 있고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아닌 각 과의 전문의가 진료 중 심장혈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자주 마주치게 될 것이며 이에 활용할 수 있는 순환기내과 지식을 숙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생 수상 소식

젊은 연구상 (Young Investigator Award) 수상

본과4학년 전은소 학생



본과 4학년 전은소 학생 (지도교수 태정현)이 지난 11월 16일 대한소화기학회 주관으로 열리는 대한민국 소화기연관학회 국제학술대회(Korea Digestive Disease Week, 이하 KDDW)에서 젊은 연구상 (Young Investigator Award) 을 수상했다.

연구팀이 발표한 주제는 ‘중등도 및 고강도 신체운동과 역류성식도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로 역류성식도염 환자 2만 여명을 대상으

로 신체운동과의 관계를 단층 및 종단 분석해 고강도 신체운동이 역류성식도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고했다. 이는 현재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과는 달라 역류성식도염 환자의 신체운동에 대한 권고가 수정되어야 함을 설명한 연구라는 점에서 소화기기능성질환 및 운동질환 연구분야의 대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전은소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임상연구방법과 랩로테이션을 통해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여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KDDW는 연평균 35개국 2,500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대한소화기연관학회들의 학술대회로, 젊은 연구자상은 40세미만의 젊은 연구자들 중 우수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제 1 저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러닝 컨소시엄 공모전 수상

본과 4학년 김미산, 김소진, 황유빈 학생



의과대학 이러닝 컨소시엄(운영위원장 김기운)이 주최한 ‘2023년 학습자료 공모전’에서 의학과 4학년 김미산, 김소진, 황유빈 학생 (지도교수: 태정현)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학생들은 ‘혈액배양채혈 및 안전수혈술기 OSCE’을 주제로 직접 상황설명문을 작성한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사 국가시험에서 해당 환자를 진료할 때 반드시 시행해야 올바른 술기를 영상에 담아 출품하였다. 의학과 4학년 김미산, 김소진, 황유빈 학생은 수상에 대해 “국가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러닝 컨소시엄 자료를 많이 참고했는데, 공부하다 보니 아쉬운 점이 보였고, 우리 학교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담은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공모전에 참가하였습니다. 영상제작에 아낌없이 도와주신 소화기내과 태정현 교수님, EMSC 김선희 코디네이터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후배님들의 공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영상자료,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의학 학습이 점차 확대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러닝 컨소시엄 학습자료 공모전 외에도 더 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의과대학 이러닝 컨소시엄의 학습자료 공모전은 지난 2018년부터 매해 개최되는 행사로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학습콘텐츠를 제작하여 학습에 대한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학생들은 역대 2019, 2020, 2022년에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의학교육 세미나

의학교육 세미나는 의학교육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우리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함께 고찰하고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우리의대 혁신 교육 사례 공유

일시: 10월 26일(목) 17시 장소: 의학관(마곡) 301호



▲ 제7차 의학교육 세미나 진행 모습

7차 세미나 주제는 '우리의대 혁신 교육 사례 공유'로 환경의학교실 이정실 기초전공의와 의과학연구소 안소현 연구교수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환경의학교실 이정실 기초전공의는 △기초의학과 메타버스의 접목 - 환경의학실습, 의과학연구소 안소현 연구교수는 △이론과 실습으로 이루어진 의과대학 창업수업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발표가 끝난 후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운영된 우리의대의 혁신 교육 사례의 기획부터 운영, 학생들의 피드백까지 공유하고 향후 교육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KAMC Annual Meeting을 다녀와서

이화의학교육센터 특임교수 정소미



지난 11월 17일 개최된 2023 KAMC Annual Meeting에 다녀왔다. 주제발표인 '필수의료인력 양성에서 의과대학의 역할' 외에도 '의과대학 통합 6년제 교육과정', '지역필수의료 의사 양성을 위한 의학교육 프로그램',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적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모색'의 Parallel Session이 운영되어 교육 현안과 관련된 풍성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대에서 준비하고 있는 '창의의사전연구' 과정과 맞닿아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 세션에 가장 관심이 갔다. 우리나라의 의사과학자 양성 현황과 문제점, 진료-연구-창업의 역할분배 및 연구개발의 실용화, 그리고 의사과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두 분의 교수님들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김중훈 교수님과 KAIST 의과대학원의 이정석 교수님이 의사과학자로서 걸어오신 길을 들으면서 연구에 대한 열정과 소명 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창의의사전연구' 과정을 준비하며 학생들이 경험하게 될 연구 경험에 대해서 어렵듯이 짐작만 해오던 것들이 교수님들의 발표로 명확해지는 느낌이었다. 새롭게 시작되는 '창의의사전연구'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도 의사과학자로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소식지에 게재할 의과대학 가족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원고분량은 A4용지 ½매 내외이며 angelica66@ewha.ac.kr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인재포럼 'New Wave: AI와 빅블러 시대의 인재혁명'을 다녀와서

의학교육센터 연구원 고아라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열린 올해 글로벌인재포럼의 주제는 'New Wave: AI와 빅블러 시대의 인재혁명'였습니다. AI 기술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등장한 ChatGPT가 등장한 지 불과 1년이 되었지만, 이전의 시대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술과 디지털 테크가 촉발한 초연결, 융합의 시대는 이전과는 다른 인재상, 인재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며 AI기술은 더 이상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상징물이 아닙니다. 시대적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융합형 리더를 요구하는 지금 새로운 시대는 국가와 사회, 기업, 교육 현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의학 분야에서 AI 시대가 요구하는 빅블러(Big Blur)의 등장은 더욱 빠르게 요구되어 있으며 새로운 생존 경쟁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과대학의 의학교육 현장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융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생산성을 선보일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구, 대상, 교육 방법의 전환을 시도하며 다각적으로 몰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AI와 의료를 융합하며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주류를 형성하기 위해 인재 양성과 교육문화의 변화, 기술과 인프라 구축 등 중요한 전략적 대응 방법을 도출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하반기 교내/외 의학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일정

교내

날짜	주최/주관	워크숍 및 세미나	장소/비고
12.28.(목)	이화의학교육센터	제8차 의학교육 세미나	의학관(마곡) 301호
2024. 01.25.(목)	이화의학교육센터	제9차 의학교육 세미나	
2024. 02.29.(목)	이화의학교육센터	제10차 의학교육 세미나	

교외

날짜	주최/주관	워크숍 및 세미나	장소/비고
12.15-16. (금-토)	KAMC	우리대학 인문사회의학교육과정: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가?	대면
12.21-22. (목-금)	의학교육연구원	제142차 전국의학대 신입교수 워크숍	
2024.01.19-20. (금-토)	KAMC	미래의학 리유니온(Reunion) 학생캠프	
2024.01.23-24. (화-수)	의학교육연구원	제143차 전국의학대 신입교수 워크숍	